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이 연구는 1970년대 말 이후 한국에서의 동남아 경제 연구의 성과를 개관한 것이다. 시기별, 주제별, 지역별 연구의 현황, 그리고 연구자의 성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동남아 경제 연구는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시작되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연구결과는 주로 정책 보고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 학술 논문의 경우도 정책지향성이 강했다. 시기별로는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이후의 연구가 많았고 지역으로는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연구주제는 현지 경제연구가 많았으나 한국기업의 진출 환경, 한국과 동남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았다. 동남아 현지 경제를 연구한 경우, 일반적인 경제분석이 많아서 연구의 구성성과 깊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경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과정의 개편, 국제경제론의 방법론 대신 지역지향적인 현장 연구 강화, 정부나 대학에서의 연구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주제어 동남아 경제,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세안,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I. 머리말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2010년 532억 달러로 총수출의 11.4%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441억 달러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동남아 무역수지는 2010년 91억 달러의 흑자이다.¹ 총교역 973억 달러는 오랜 경제협력 대상국인 미국 및 EU와의 교역 규모보다 더 많아, 중국에 이은 2위 규모이다. 동남아는 또한 한국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지역이다.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해외투자는 1980년대 중반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¹ 여기서 동남아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국을 지칭한다. 이들은 아세안이란 지역통합체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남아와 아세안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의 섬유 및 신발업체들은 인도네시아로 진출했고, 부품 산업이 발전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한국 전자업체들의 주요한 생산기지가 되었다. 또한 1980년대 말 베트남이 개방을 시작하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대거 진출했고 현재까지 제조업, 서비스, 건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한국과 오랫동안 같은 정치적 입장에서 있었지만, 또 다른 입장에 서서 베트남에 참전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 동남아는 1990년대 후반 동시에 외환위기를 겪었다. 한국은 또한 위기 이후에는 아세안+3 체제를 발족시키는데 아세안과 협력했으며, 경제협력의 심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도 했다. 나아가 중국의 고도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동아시아 질서가 급변하면서, 중규모 국가로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남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생겼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연구 역량과 성과는 미약하다.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1970년대 말 국제경제연구원(현재의 산업연구원)에서 동남아연구부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남아나 혹은 동남아 개별국가의 경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제경제연구원은 주로 정부의 통상진흥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경향은 이후에 산업연구원의 기능을 일정 부분 이어받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²

이 글은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에 대한 흐름과 그 특징을 개관하는 것이다. 동남아 경제 연구의 역사적 궤적을 개관하는데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이다. 먼저 그것은 어떤 연구결과물을 연구라고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

² 국제경제연구원과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를 모델로 한 성격이 강하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1958년 설립된 이후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의 총본산 역할을 했는데 연구 분야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종합적인 지역연구를 망라하고 있었다.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지역종합연구에 치중했다면 국제경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경제통상 분야에 집중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한때는 세계경영을 꿈꾼 강대국 일본보다 작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된다. 동남아 경제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발표 형태는 보고서 형태의 출판물이나 학술지의 논문 외에도 최근에는 연구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는 보고서도 많다. 학술대회나 논문집을 통해 발표된 연구만을 ‘순수한’ 연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논문들조차도 사실은 정책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특정 연구가 경제 연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 기업, 가계로 이루어지는 경제주체들의 소비, 투자, 생산, 배분 등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경제 연구라고 보지만, 경제학과 인접학문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경제행위와 정치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소위 정치경제 분야의 경우 정치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와 인근 지역을 동시에 다룬 연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2000년대 들어 아세안+3 체제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이들을 포함시켜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한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를 다룬 분야, 동남아와 한국의 비교연구 혹은 동남아와 다른 나라의 비교연구도 경계가 모호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고 기존의 연구 실적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필자의 임의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경제문제를 주요한 주제로 다룬 연구기관의 보고서, 학술단체의 기관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동남아 경제 연구 실적이라고 보고 분석하기로 한다.³ 그러나 동남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을 당시 그 공간을 채워 주는데 큰 역할을 했을 국제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국가편람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단순한 소개는 연구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국과 동남아 간의 관계에서는 한국-아세안의 FTA 효과 분석, 한국의 대동남아 진출방안 등 아세안 현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경우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동남아 경영사례 등 한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사례는 경영학 분야의 한국

³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도 동남아나 개별국가에 대해 조사보고를 한 경우도 있고 특히 198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동남아 경제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당시에는 이들 기관의 조사 보고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구로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동남아가 속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아세안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기업 연구라고 보아 제외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한국학술정보(KISS) 및 누리미디어(DBPIA)의 자료, 국회 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색하고 연구결과물을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동남아 경제의 연구 실적은 1970년대 말부터 2011년 3월 현재까지 총 198건이었다.⁴

다음의 제II장은 한국의 기존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 시기별 실적, 지역 및 주제별 실적, 연구기관과 연구자 분석 등을 다룬다. 그리고 III장은 맺음말로써 동남아 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결정한 요인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다. 또한 향후 동남아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살펴본다.

II.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의 과거와 현재

1. 연구의 시기별 분석

1) 전체 연구 개관

한국에서 동남아 경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8년 국제경제연구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경제연구원이 1978년 말 발간한 『동남아시아요람(東南亞地域要覽)』을 최초의 연구결과물로 간주한다. 당시 동남아연구부장을 담당한 송희연(宋熙季) 박사는 책의 “엮어내면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년 초에 동남아시아연구가 착수된 이래 당연구부는 각국별로 개발계획, 무역구조, 자원조사, 산업조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조사연구보고서를 출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전체에 관한 개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편한 단행본을 발간하여 달라는 각계의 요망에 부응하여 이번에 지역요람시리즈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요람」을 엮어내게 되었습니다. 이 요람에서는 먼저 동남아의 자연, 역

⁴ 다수의 기고자들의 논문을 모아 편찬한 형태로 출판된 단행본들의 경우 해당 단행본을 하나의 연구결과물로 간주하고 개별 논문(챗터)은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또한 KISS나 DBPI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따로 조사하기 어려웠다.

사, 사회, 정치경제 등 일반적인 지역사정을 간결하게 소개한 다음 경제현황, 자원, 역내협력 등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제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남아에 관한 주요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실었습니다.”⁵

위에 따르면 1978년 초에 동남아지역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국가별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 책은 일종의 종합편이 된다. 국제경제연구원은 이 『동남아지역요람』의 출간에 앞서 국별편람, 개발계획시리즈, 무역구조시리즈, 산업조사시리즈, 자원조사시리즈, 사업법령시리즈, 진출분석시리즈, 현지사정시리즈 등을 통해 동남아 경제의 제반 단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표 1 참조).⁶ 국제경제연구원이 동남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1977년 말에 발간된 진출분석시리즈 제 18호 『동남아제국에의 진출을 위한 현지정보』를 제외하면 26건이 1978년 한 해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을 모두 구해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한 주제의 현지정보를 번역·소개한 형태의 보고서로서 현재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조사보고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단순한 정보의 소개라고 보아 분석 대상 연구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⁷ 대신 이들을 종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동남아지역요람』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분석을 위해 정리한 전체 연구 건수 198건을 발표형태별로 보면 학술지의 연구논문(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 포함)은 90건으로 45.5%, 간행물로 나온 보고서가 72건 36.4%, 연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라인 보고서가 26건 13.1%, 그리고 단행본 10건 5.1% 등이었다.⁸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단행본의 비율이

⁵ 국제경제연구원(1978: ii). 이 책에서 경제부문은 전체 약 150페이지 중 70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⁶ 이 당시 국제경제연구원은 현재의 서남아(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피지, 서사모아), 동북아(대만, 홍콩)를 포함해 동남아로 포괄하고 있었다.

⁷ 만약 이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에서 차지하는 국제경제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⁸ 일부 간행물 보고서는 단행본처럼 판매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단행본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 가능하다고 본다.

표 1 동남아관련 국제경제연구원의 1978년 간행물 목록

간행구분	자료명	간행일자
국별편람 (6건)	5. 버어마, 9. 인도네시아, 11. 말레이시아, 16. 필리핀, 17. 싱가포르, 19. 타일랜드	78. 3
개발계획시리즈 (3건)	제28호 말레이시아 제3차 개발계획 제29호 태국의 제4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제32호 필리핀의 5개년개발계획	78. 6. 21 78. 6. 22 78. 10. 16
무역구조시리즈 (5건)	제34호 싱가포르의 무역구조 제35호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조 제49호 태국의 무역구조 제50호 말레이시아의 무역구조 제51호 필리핀의 무역구조	78. 6. 19 78. 6. 21 78. 9. 6 78. 9. 26 78. 10. 13
산업조사시리즈 (2건)	제25호 인도네시아의 석유산업 제39호 싱가포르의 제조업현황	78. 5. 27 78. 12. 16
자원조사시리즈 (3건)	제16호 말레이시아의 자원현황과 우리의 진출방향 제21호 인도네시아의 자원현황과 우리의 진출방향 제26호 필리핀의 자원현황과 우리의 진출방향	78. 6. 20 78. 11. 11 78. 12. 13
사업법령시리즈 (3건)	제8호 말레이시아 투자관계법 제12호 필리핀의 투자관계법 제14호 인도네시아의 사업관계법령	78. 3. 29 78. 6. 24 78. 10. 21
진출분석시리즈 (2건)	제18호 동남아제국에의 진출을 위한 현지정보 제21호 동남아진출현황과 전망	77. 12. 29 78. 9. 7
현지사정시리즈 (3건)	제1호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우리의 진출전망 - 우리의 자원확보전망을 중심으로- 제2호 말레이시아의 경제현황과 우리의 협력전망 - 우리와의 경제협력강화를 중심으로- 제4호 태국의 최근 정치·경제동향 - 앞으로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78. 3. 15 78. 3. 16 78. 3. 18

주: 당시 국제경제연구원은 동남아 범주에 대양주, 서남아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여기서는 현재의 동남아에 속한 국가들의 연구자료만 발췌

자료: 국제경제연구원(1978: 148-149)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기업에 관한 책이 2권, 교과서류가 3권 그리고 기타가 5권이였다. 교과서류는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수업교재 형태로 발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남아는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정서적으로 먼 거리에 있었다. 양측의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하지도 못했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관광객이 동남아로 쏟아지기 이전이었다. 이 시기에는 대학에서 동남아 연구에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이 없었다. 1989년까지 동남아 경제에 대한 연구는 모두 산업연구원(국제경제연구원 포함)에서 발간한 간행물 형태의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선발 동남아 경제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의해 고도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의 동남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반영되기 이전인 1997년까지 8년 동안 36건(18.2%)의 연구 실적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이후의 구조조정 기간인 1998~2005년까지의 8년 동안에는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연구 결과물은 2배 가까이 증가한 71건(35.9%)에 이르렀다. 구조조정 기간이 종료되고 동남아가 아세안으로서 FTA를 통해 외부와 새로운 협력 체제를 모색하게 된 2006년부터 현재(2011년 3월 말)까지 연구실적은 85건(42.9%)에 이른다. 이전 8년 동안에 비해 규모는 증가했으나 그에 비해 연구의 동력은 더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2) 시기별 발표형태별 연구 실적

시기별 발표형태별로 연구 실적을 구분해 보면 1989년까지 발표된 6건 모두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 형태의 보고서였다. 이 시기 한국은 동남아로부터 자원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동남아가 한국의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아직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수입대체 성격의 산업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교역 규모가 많지 않았다. 예컨대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1985년은 동남아 경제의 주요한 전기가 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15.6억 달러로 총수출의 5.1%에 불과했고, 수입은 27.2억 달러로 전체의 8.7%였다. 그 다음 해인 1986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동남아 경제도 타격을 받아 한국의 동남아 수출은 전체의 3.9%인 13.7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고, 수입도 유가 하락으로 21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게 되었다. 한국은 1989년까지 동남아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적자규모는 1985년이 11.6억 달러로 최대 규모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플라자합의 이후 한국의 대동남아 투자가 시작되었고

무역수지 적자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동남아 경제 연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까닭이다.

1990~97년 기간에는 전체 36건 18.2%의 연구 결과물이 발표되었는데 학술 논문이 15편, 인쇄물 형태의 보고서가 18건 그리고 단행본이 3건이었다. 이 시기 동남아는 고도성장과 그 성장의 후유증으로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기였다. 1980년대 초반의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지속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1985년 일본과 서방 주요국들은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를 평가절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플라자합의로 경쟁력이 하락하자 일본기업은 동남아로 투자를 확대했고 한국기업도 국내 생산요소비용의 상승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동남아 투자를 시작했다. 또한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WTO가 발족하면서 자유화가 세계경제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동남아는 개방을 확대했고 국제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고수익을 쫓아 동남아로 유입되었다. 동남아 경제는 유례없이 고도성장했고 따라서 동남아의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⁹ 또한 동남아 선발 6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은 사회주의권의 몰락, 체제전환국의 세계경제 편입 등 세계경제의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정상회의에서 2008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변화 때문에 동남아 경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윤계섭과 온기선(1992), 이병두(1992)도 이러한 관심의 산물이었다. 전자는 당시 동아시아의 증권시장 호황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었고, 후자는 다른 동남아의 고도성장과 달리 성장에서 탈락한 필리핀의 섬유산업을 사례로 수입대체 산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것이었다. AFTA 창설 문제도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손수석(1995)과 유재원(1996a; 1996b) 등은 동남아의 역내무역 자유화의 의미와 효과를 연구했는데 이 기간에 유사한 연구가 6건에 이르고 있다.¹⁰

⁹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문순(2003), “동남아 경제의 발전요인과 특성”, 윤진표 편,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 전략』, 오름.

¹⁰ 이 시기까지도 동남아지역이란 지역의 구분은 애매했다. 윤계섭과 온기선(1992)의 “동남아 주요국 증권시장과 자본자유화 현황”이란 논문에서 동남아 주요국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였고 손수석(1995)의 “동남아 경제의 지역화 및 역내무역유발구조 분석”에서의 동남아지

표 2 동남아 경제 연구의 기간별 발표형태별 추이

	논문	보고서(간행물)	보고서(인터넷)	서적	계
1970~1989	0	6 (8.3)	0	0	6 (3.0)
1990~1997	15 (16.7)	18 (25.0)	0	3	36 (18.2)
1998~2005	38 (42.2)	20 (27.8)	8 (30.8)	5	71 (35.9)
2006~2011. 3	37 (41.1)	28 (38.9)	18 (69.2)	2	85 (42.9)
계	90 (100.0)	72 (100.0)	26 (100.0)	10 (100.0)	198 (100.0)

자료: 필자 조사.

이 기간에 출간된 보고서는 논문보다 많은 18건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는 다른 기간에 비해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발표되었는데, 역시 학계보다는 연구소가 동남아의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이 1980년대 말 개혁과 개방(도이모이) 정책을 시작하면서 산업 연구원에서 베트남 관련 연구(최신립, 1990; 안희완, 1991; 최봉현, 1994) 결과물이 간행되었다. 아세안 경제의 고도성장 및 아세안자유무역지대 역시 정책연구들의 좋은 주제가 되었는데 김희주 외(1995)는 아세안을 종합적으로 다룬 보고서였다. 단행본 서적도 3권 출판되었다. 박변순 외(1993)는 베트남의 개방에 따라 베트남 경제의 일반 현황을 소개했고, 이문봉(1994)은 급속히 성장하던 태국의 CP, 방콕은행 그룹과 인도네시아의 살림 및 아스트라 그룹을 소개했다. 또한 동남아지역연구회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출판한 길인성 외(1995)는 동남아의 경제사, 경제발전과정, 국제정치경제의 제 측면을 검토하는 공동저작물이었다.

1998~2005년 기간은 동남아의 구조조정 시기였다. 총 71건의 연구결과물이 발표되었는데 논문 38건, 간행물 형태의 보고서 20건, 인터넷을 통해 발표된 보

역에 동남아 4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시아신흥공업국 4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9개국을 포함해서 분석했다.

고서 8건, 그리고 단행본 서적이 5건이었다. 이 시기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가 문을 열었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남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근거하고 있었다.¹¹ 외환위기로 동남아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고 외화차입으로 투자를 확대했던 동남아의 기업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기업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환율 폭등으로 인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누적되어 금융시장이 마비되었다. 이러한 동남아의 위기는 1997년 말 한국에 상륙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동남아 경제가 한국 경제와 결코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남아에 대한 연구도 양적이나 질적으로 변화를 겪었다. 이 시기에는 외환위기의 발생,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개혁 개방 문제 등이 주요한 연구 분야로 떠올랐다.

학계가 발표한 논문은 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8건에 이르렀는데, 동남아의 외환위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이성량, 1999; 박은홍 외, 1999; 박변순, 2000; 안종량 외, 2000). 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도 좋은 연구주제였다(서동천, 2000; 김종길, 2001; 권율, 2004). 경제위기와 함께 노동문제도 관심을 끌었는데,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임금정책,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이 주목을 받았다(전제성, 1999; 김재원, 1999; 김홍구, 2000). 보고서는 전체 28건으로 전기의 18건에 비하면 증가했지만, 이 시기에 논문 전체의 42.2%가 발표된 것과 비교해보면 집중도가 낮았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진들이 동남아의 금융제도, 위기의 원인 등에 대해 연구했고, 아세안이 FTA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이 FTA 연구를 발표했다. 예컨대 권경덕(2003; 2004), 정인교 외(2004) 등은 아세안의 일본 및 중국과의 FTA에 대해 현황을 정리하고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 시기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온라인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역시 위기와 관련하여 동남아 경제동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많았다. 한편으로 5권의 서적이 출판되었는데, 신윤희(2001)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시기의 정치경제 구조의 근본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는 자본축적문제, 화인사회의 형성, 노

¹¹ 동남아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박변순 외(1998), 『IMF 사태로 본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체제』, 삼성경제연구소

동문제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를 잉태한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다. 또한 동남아 전공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는데(윤진표, 2004; 2005), 역시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는 전체 85건으로 논문이 37건, 보고서가 46건 그리고 서적이 2권이었다. 연구성과물이 이전 8년에 비해 더 많아졌지만 논문의 편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학계에서 동남아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남아의 위기가 해소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세안이 추진한 FTA에 대한 효과를 다룬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에 비해 정책연구는 더욱 활발해져 정책보고서나 인터넷 게시를 포함해서 85건 중 46건이 발표되었다. 역시 한국과 아세안의 FTA 체결에 따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후속 연구가 많았다.

이 시기의 특징은 연구 주제 자체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를 관통하는 연구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산업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여 연구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역과 주제에 대한 고찰

1) 지역별 연구

연구의 분석대상을 국가별로 보면 동남아 전체를 다루고 있는 연구가 103건으로 총 198건 중 52.0%이다.¹² 이를 다시 시기별로 보면 1990~97년 기간 중에 26건으로 103건 중에서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간의 전체 연구가 198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8.2%(표 2 참조)보다 높은 것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가 23건으로 가장 많다.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가 2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 그 다음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순으로 나타난다. 캄보디

¹² 물론 동남아 전체를 다룬다고 해서 동남아 10개국을 전부 동시에 다룬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남아 주요국, 주로 선발 아세안을 다룬 경우도 동남아 전체를 다룬 것으로 간주했다.

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에 대한 연구는 3~4건으로써 이들이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 경제의 주요 주제였던 외환위기와 관계가 없는 베트남이 이처럼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베트남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냉전체제 이후의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전환을 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권율(1998)의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손정식(2000)의 베트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대한 연구, 이두현(2000), 구성열(2001) 등은 모두 베트남 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체제전환국이라는 베트남의 성격으로 인해 동남아 경제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베트남에 관심을 가졌다. 1990년대에 베트남을 연구한 이들 중에는 실제로 산업연구원에서 북한 등 체제전환 국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기별로 보면 베트남에 대한 연구는 1998~2005년 기간에 23건 중의 10건이 집중되어 있어 전체 연구 경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1인당 소득은 선발 아세안 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인구, 면적, 전체 GDP 기준으로는 동남아 최대 국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나타났다. 최초로 인도네시아를 다룬 연구는 민영화와 규제개혁을 다룬 박재봉(1997)으로, 아직 1997년 하반기에 발생한 외환위기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위기가 정치사회적 위기로 확산되는 등 큰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중(1998) 외에는 이를 다룬 논문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은홍 외(1999)와 나희량(2010)이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 인도네시아의 실정을 비교해서 위기의 한 측면을 거론했을 뿐이다. 신윤환(2001)만이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구조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2006년 이후 연구저작물이 많이 나왔는데 각 주제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유사한 경우가 없다. 이는 2006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안정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이경태 등(1985)의 전자부품 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전자부품 산업을 비교 연구했

표 3 지역 및 국가별 연구 건수 추이

	1980년 이전	84~89년	90~97년	98~05년	06년~현재	총합계
동남아 전체	3	2	26	31	41	103
베트남	0	0	5	10	8	23(1)
인도네시아	0	0	2	7	14	23(4)
싱가포르	0	1	2	10	9	22(5)
태국	0	0	0	8	10	18(7)
말레이시아	0	1	1	6	6	14(7)
캄보디아	0	0	0	0	4	4(2)
필리핀	0	0	1	1	1	3(1)
미얀마	0	0	0	0	3	3(1)
라오스	0	0	0	0	2	2(1)
총합계	3	3	37	73	98	215

주: 2개국 이상의 나라의 공동연구인 경우, 각 나라별로 분류 시 중복하여 계산했고 () 속의 수치는 공동연구된 사례의 수입.

자료: 필자 조사.

다. 이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직접투자로 발전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전자 부품산업을 한국 및 대만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후 나온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는 박의범 외(1996)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였다. 싱가포르는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다수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고 그 결과 이후의 싱가포르에 대한 연구는 FTA와 관련한 연구가 많았다. 태국의 경우 1998년까지는 연구 실적이 없으며 1999년에 들어서야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성량, 1999; 이장영 외, 1999). 태국 역시 FTA 관련 연구가 많았다.

말레이시아와 관련된 최초의 연구 역시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이경태 등(1985)의 연구였다. 박변순(1999, 2000)은 동남아 위기 이후 말레이시아가 취한 자본통제 정책의 성격을 분석했고, 장원창(2000, 2008)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자본통제를 분석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단독 연구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다뤄지면서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다. 선발 아세안 중에서 필리핀에 대한 연구는 단지 3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1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다뤄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필리핀의 정치적 급변이 한국의 학계에 상당한 지적 토론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 부족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필리핀 경

제가 1970년대 마르크스 정권 이후, 다른 동남아 국가가 대외지향형 공업화를 통해 성장한 것에 반해, 독재체제 속에서 성장의 대열에서 탈락한 까닭이다.

아세안 저개발국 중에서 베트남을 제외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캄보디아는 공동으로 다뤄진 2건 포함 4건, 미얀마의 경우 공동으로 다뤄진 1건을 포함해 모두 3건, 그리고 라오스는 공동연구 1건을 포함 2건의 연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구 부족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이들에 대한 관심 부족 문제와 실제 연구에서 부딪히는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연구는 2005년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이들 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으로서의 연구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재완(2009), 강문성 외(2011) 등의 저서는 시장 분석과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이다. 미얀마, 라오스 등과 관련한 연구 다섯 개 중 네 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서 펴낸 단행본 보고서였다.

2) 주제 성격별 연구

여기서는 분석대상 연구결과를 4개의 성격으로 구분해 보았다. 동남아와 다른 지역의 비교연구가 중심인 ‘비교연구’, 한국의 입장에서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동남아 현지의 제도와 환경을 분석한 ‘진출 환경 분석’, 한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을 분석한 ‘협력 방안 연구’, 그리고 동남아 현지의 경제 문제를 연구한 ‘현지 경제 연구’ 등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현지 경제 연구가 132건으로 66.7%를 차지했고, 협력 방안 연구가 31건으로 15.7%를 차지했다. 또한 비교연구가 18건으로 9.1%를, 그리고 진출 환경 연구가 17건으로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행본 서적을 제외한 188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형태별로 보면 연구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표 4 참조). 일반적으로 정책보고서보다는 논문이 학술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정책보고서와 논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 188건에서 현지 경제 연구가 123건으로 65.4%였고 논문의 경우에는 전체 90건 중 60건인 66.7%가 현지경제에 대한 연구였다. 논문의 경우 협력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정책연구에서의 비중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이 결과 역시 동남아 경제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가 내용과 깊이에서 상당히 제한적임을 보여

표 4 발표형태별 연구 성격(서적 제외)

	비교연구	진출 환경	협력 방안	현지 경제	계
논문	12 (13.3)	6 (6.7)	12 (13.3)	60 (66.7)	90 (100.0)
단행본보고서	4 (5.6)	10 (13.9)	18 (25.0)	40 (55.6)	72 (100.0)
인터넷보고서	2	0	1	23	26 (100.0)
계	18 (9.6)	16 (8.5)	31 (16.5)	123 (65.4)	188 (100.0)

자료: 필자 조사.

준다.

서적까지 포함한 전체 198건의 연구를 성격별로 구분하고, 현지 경제 연구인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제일반, 산업, 기업, 금융, 노동, 대외경제, 기타로 구분해 보았다(표 5 참조). 일단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비교연구와 진출 환경 연구는 2006년 이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협력 방안 연구는 2006년 이후가 더 많았다. 이는 2005년 이전 동남아에 대한 상대적 이해(비교연구)나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기업의 진출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을 것임을 반영한다. 2006년 이후에는 동남아와 한국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고, 동남아 후발국에 대한 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증가한다. 이에 비해 현지 경제 연구의 경우 전체 연구의 시간경과에 따른 비중과 비교해 보면 1998~2005년 기간에 좀 더 집중되어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현지 경제 연구를 세부주제별로 구분해 보면 경제일반, 대외경제, 산업, 금융 등의 순으로 연구 실적이 많다. 대외경제 관련연구는 1990~1997년에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동남아가 이 시기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면서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6년 이후 다시 관심이 높아졌다. 아세안이 한국,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금융관련 연구는 외환위기를 반영하여 1998~2005년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후에는 역시 관심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노동의 경우도 한국기업의 진출과 관련해서 노동문제가 중요한

표 5 주제별 시기별 연구 추이

	1980년 이전	84~89년	90~97년	98~05년	06년~현재	총합계
비교연구		1	4	6	7	18
진출 환경		1	6	4	6	17
협력 방안		1	5	6	19	31
현지 경제 연구	3		21	53	54	131
- 경제일반	1		5	16	14	36
- 산업			2	4	15	21
- 기업			2	6	1	9
- 금융			2	11	5	18
- 노동				8		8
- 대외경제	1		11	7	17	36
-기타	1			2	2	5
총계	3	3	36	70	86	198

자료: 필자 조사.

이슈가 되었고 동남아 외환위기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순 등에 주목함으로써 1998~2005년 기간에 집중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산업관련 연구는 전체 21건 중 2006년 이후에 15건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동남아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일반 경제에 대한 이해보다 개별산업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도로 동남아의 주요산업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전략적 연구가 추진되어, 신재생에너지, IT, 의료관광, 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기여했다(배정환 외, 2011; 강인수 외, 2011; 신장섭, 2011; 이성신, 2011).

기업에 관련된 연구는 전체 9건의 연구 실적이 있다.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사회주의 체제의 사유화는 흥미있는 연구주제였다(권윤, 1998; 이두원, 2000; 손정식, 2005). 동남아 화인기업도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정구현 외(2001)는 일반적인 화인기업의 전략에 대해 연구를 했고, 박변순(2002)은 외환위기 이후 태국의 CP그룹, 인도네시아의 시나르 마스(Sinar Mas) 그룹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승영 외(2010)는 화인기업의 기업문화를 중국기업과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동남아 화교자본이 관심을 끈 것은 1980년대 후반 동남아의 고도성장으로 1990

년대 초 들어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수입대체 산업에 화교기업인들이 진출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에 동남아의 기업들은 영향력을 확대했는데 이문봉(1994)의 연구는 태국의 방콕은행과 CP그룹, 인도네시아의 살림그룹과 아스트라그룹의 사례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동남아 화교기업을 국내에 소개한 것이다.¹³ 박번순(2001)은 동남아 주요기업이 1997년의 위기를 어떻게 맞았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추진했는가를 개별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정리하기도 했다. 기업연구도 1998~2005년에 걸쳐 6건으로 가장 많고 2006년 이후에는 시들해졌다.

3. 동남아 경제 연구자 분석

1) 정책연구와 연구기관의 역할

진술했듯이 산업연구원의 전신인 국제경제연구원은 동남아 경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제경제연구원의 설립은 중동의 오일 머니 이용과 관계가 있다. 1970년대 전반 제1차 석유파동 과정에서 오일 달러가 풍부해진 중동 국가들이 인프라 건설을 늘리면서 한국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진출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에, 중동으로부터의 송금액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¹⁴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중동문제연구소의 설립을 지시했고, 이 연구소는 1977년 국제경제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연구영역을 확장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경제연구원에 동남아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8년이였다.

국제경제연구원은 1982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변했고 1984년에는 산업연구원으로 개편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역경제 연구의 중심에 서 있었

¹³ 현재는 폐간되었지만 홍콩에서 발행되던 주간 시사지인 『아시아위크(Asiaweek)』는 1990년대 매년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인사(Asia Power) 50인을 선정하고는 했는데 1997년의 경우 8위가 인도네시아의 살림(Salim) 그룹의 림시오량(Liem Sioe Liong)이었고 13위에 말레이시아의 로버트 콕학년(Robert Kuok Hock Nien) 그리고 15위에 태국 CP그룹의 다닌(Dahin) 회장을 선정했다. 한국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23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9위였다. 『아시아위크』, 1997. 5. 30.

¹⁴ 한국은 건국 이후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1986년 이전 유일하게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해는 1977년이었고 흑자 규모는 약 1,200만 달러였다. 중동건설 호황 때문이었다.

표 6 주요 연구기관 및 학회의 연구 건수

		~1989년	90~97년	98~05년	06년~현재	총합계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	5	15	41	61
	산업연구원	6	11	3	0	20
	삼성경제연구소	0	1	7	5	13
	한국금융연구원	0	0	4	1	5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0	4	0	0	4
학회	한국동남아학회	0	2	25	9	36
	한국무역학회	0	3	5	2	10
	국제지역학회	0	0	0	3	3
	국제통상학회	0	0	1	2	3
	동북아경제학회	0	0	0	2	2
	국제경제학회	0	0	1	1	2
	아시아 학회	0	0	0	2	2

주: 학회학술대회 발표논문 포함.

자료: 필자 조사.

다. 1970년대 말 이미 동남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별편람 등을 출간해 전파했는데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나 80년대에도 그러한 활동은 계속되었다. 박순철(1989)은 한-아세안 간의 무역결정패턴의 요인을 무역결합도를 통해 분석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 배광선 등(1990)의 『ASEAN 제국의 투자환경과 우리의 진출전략』은 이 시기 아세안 경제의 성장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연구의 효시가 되었는데 윤상철 외(1991)의 『한·ASEAN 간 산업협력의 현황과 전개방향』이 그 연장선에 있었다. 천상덕 외(1996)의 『Greater ASEAN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은 인도차이나 국가의 아세안 가입과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추진에 따라 외연적으로 확대된 아세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였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1988년 10월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를 조직했는데 이 기구는 공산권 지역연구도 담당했다. 또한 1989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당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역경제가 아닌 국제경제 연구를 목적으로 출범했지만 1992년 국제민간경제협의회를 통합하면서 지역경제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초기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국제경제를 전공한 신진학자들이었다. 이들은 동남아가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면서 동남아 경제 연구를 시작했지만, 연구의 주제나 영역은 지역연구로서 동남아 경제가 아니라 국제경제로서의 동남아의 대외경제관계 등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산업연구원의 지역연구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고 세계지역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이 되었다. 연구원의 동남아 경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2006년 이후 급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신흥국 연구를 강화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외부학자들의 연구 네트워크를 조직해 프로젝트를 발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0년도 연구과제로서 2011년 3월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는 15건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동남아 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86년 설립 당시 산업연구원의 기능과 조직을 원용함으로써 해외지역연구를 시작했지만, 이 분야는 삼성그룹의 해외진출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동남아 연구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주로 삼성그룹 내의 연구수요에 머물렀으나 인터넷이 보급되고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전염되면서 연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금융연구원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분야에 관한 몇 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그 다음으로는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가 연구소 기관지인 『경상논집』에 4건의 연구물을 발표했다.

2) 동남아 관련 연구자

학술단체로서는 동남아학회가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을 내놓았다. 총 36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35건은 기관지인 『동남아시아연구』를 통한 것이었고 1건은 학술대회를 통해서였다. 『동남아시아연구』는 1992년 창간된 이후 2011년 2월 말 호까지 모두 35편의 동남아 경제 관련 논문을 수록했다. 1997년까지는 2편, 1998~2005년 사이에 24편이 발표되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9편이 발표되어 논문발표 건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1992년 이후 1997년까지 경제 관련 논문수가 적은 것은 당시 동남아시아학회가 주로 정치, 역사, 사회, 인류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연구』에 최초로 발표된 경제관련 논문은 필리핀의 섬유산업을 통

해 수입대체산업화의 성과를 분석한 이병도(1992)였다.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 학회에도 경제학자들의 참여가 높아졌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연구』가 경제 연구를 특화할 수 없는 동남아 학의 종합연구지라는 점에서 게재된 경제논문은 주제가 다양하고, 특정한 편집 방향을 찾는 것 역시 어렵다. 지역별로는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동남아학회 외에 동남아 경제에 관심을 보였던 학회는 한국무역학회이다. 총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3건이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이 7편이었다. 학회의 성격에 따라 주로 무역관련 연구들이다. 이남구(2005)와 손일태(2007)의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의 대아세안 경제협력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국제지역학회에서는 고종환(2007, 2008)이 한국-아세안 FTA의 효과를 분석했다. 한국통상학회의 고종환(2006), 김기홍(2006) 역시 한국-아세안 FTA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동남아시아 종합연구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 연구자들의 모임으로서 동남아 경제에 관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지역연구회는 공동연구를 통해 동남아 경제의 발전과 산업화를 연구하여 이미 1995년에 단행본을 출판하였다(길인성 외, 1995). 2004년 출판된 윤진표 편의 『동남아경제성장과 발전전략: 회고적 재평가』와 2005년 출판된 윤진표 편의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등은 그러한 공동연구의 소산이다.¹⁵ 비록 이 연구는 주로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동남아 경제의 정치적 측면을 파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개별연구자로서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했던 연구자는 박변순이다. 본 조사에서 정리한 198편의 연구결과물 중 박변순이 작성한 보고서, 책, 논문 등은 총 17편에 이른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동남아 경제의 동향분석을 중심으로

¹⁵ 공동연구는 수명의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의 논문을 써서 책으로 출판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 경우 최종 책으로 출판된 결과를 하나의 연구결과물로 간주했다.

¹⁶ 길인성 등의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일본기업의 동남아 투자에 대해 집필한 이광철을 제외하면 모두 정치학자들이었다. 윤진표가 편집한 두 권의 서적에서도 편저자인 윤진표를 포함 다수의 집필자들이 정치학자였다.

연구했으나, 동남아 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동남아 5개국의 주요 민족기업과 화교기업의 역사와 경영상황을 소개했고(박번순, 1996), 2001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기업의 위기직면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한 『동남아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을 발간했다. 그는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2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변화』를 발간하여 외환위기 이후 화인기업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권율도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 실적을 쌓았다. 그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연구저작물 중 12건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집필하였는데, 실제 정부용역과제는 이 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다면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연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발간하는 등 베트남에서 시작한 그의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서남아팀장을 맡으면서 동남아 전체로 확산돼, 2002년에는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을 발간하기도 했다. 2004년에 발간한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등 그의 연구는 한국-아세안 FTA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의 ODA 정책에 관여하면서 동남아를 대상으로 하는 ODA 분야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동남아시아연구』에도 4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 외의 주요 연구자로는 공동연구를 포함하여 이재호(8건), 정재완(7건), 원용걸(6건), 김완중(5편) 그리고 유재원(5건), 배희연(4건), 김종길(4건) 등이 동남아 경제 연구에 상당한 실적을 쌓았다. 최근에도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김완중(2005; 2009; 2010a; 2010b), 원용걸(2008; 2010a; 2010b) 등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연구자들로서 미국식의 경제학 연구방법론에 충실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3편 이상의 연구 실적을 보인 연구자는 천상덕(3편), 서동혁(3편), 김기홍(3편), 손기태(3편), 김한성(3편), 김태윤(3편) 등이다.¹⁷ 전 3자는 모두 산업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했고, 후 3인은 2011년 상반기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직자들이

¹⁷ 이 외에도 정영규(5편)와 고중환(4건)이 다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영규의 5편 중 2편은 교과서 형태의 단행본이고 고중환의 4편 중 3편은 한국-아세안 FTA의 효과분석이어서 순수 아세안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¹⁸ 이는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에서 두 연구기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의 동남아 경제 연구에 대한 개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동남아 경제 연구는 정부의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정책보고서가 학술논문보다 더 많고 연구의 성격도 한국(기업)의 진출 방향이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술 논문은 1990년대 들어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이들 역시 정책 지향성이 높다. 동남아 경제에 대한 연구는 지역경제 연구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소의 정책보고서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지 경제를 연구한 경우도 총론적 성격의 일반경제에 대한 것이거나 FTA를 포함한 아세안의 대외경제관계를 분석한 사례가 많고, 동남아 경제 자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본, 기업, 정부, 노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즉 동남아의 시각에서 동남아나 개별 국가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난 30년 이상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 경제에 대한 프레임이나 논쟁점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동남아경제발전 모델 등에 대해서는 김종길(1994; 1995), 박변순(2004), 윤진표 외(2004)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지역적으로 보면 여전히 동남아 전체를 포괄하는 총론적인 성격의 연구가 많다. 동남아 경제가 발전단계나 규모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

¹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본궤도에 오르자 1990년대 들어 정부에서 연구기관 간의 기능조정이 있었고 산업연구원의 지역연구 기능은 폐지되었다. 국제경제연구원에서 시작해 산업연구원에 이어져 온 동남아 경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연구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당시 산업연구원에서 지역경제 연구를 하던 연구자들의 지식과 노하우는 그들이 지역연구를 그만두면서 살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아쉬운 일이다.

구하고, 동남아를 동시에 다룬 저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연구의 깊이에 한계가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저개발국인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한국과 유사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고 외환위기의 경험을 공유한 국가들에 대한 연구보다 더 많다. 이는 동남아 경제에 대한 전문 연구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이라는 점 때문에 비동남아 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과 같은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에 대한 연구가 미약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자 층이 취약하다. 공동연구를 포함해서 198편의 저작물 중 3편 이상의 연구 실적을 보유한 연구자가 17인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하고 있거나 여기를 거쳐 간 연구진 혹은 과거 산업연구원의 연구진이다. 이들조차도 동남아 현지의 장기적인 현장연구를 한 경우는 별로 없이 직무활동(on the job)을 통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거나,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어서 지역경제로서 동남아 경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동남아 전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외환위기와 관련되거나 한국과 아세안의 FTA 추진 등에 따라 자기 분야에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동남아 경제를 연구한 후, 후속 연구를 계속하지 않는다.

넷째, 연구의 발표 매체도 정부 출연기관이나 동남아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경제학회의 기관지인 『경제학연구』에서 동남아 경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는 없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국제경제학회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박인원(1999)과 장원창(200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한국경영학회의 기관지인 『경영학연구』에는 화인기업의 전략을 다룬 정구현 등(2001)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면 동남아 경제에 대해서는 주류경제학계가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연구의 양과 질에서 아직 빈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파편화된 채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비록 정책지향성의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연구 수준은 동남아 전체를 다룬 개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점에서 동남아 경제 연구가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동남아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동남아 경제 연구의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먼저 인력양성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학 교육과정은 미국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교수진의 학문적 배경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경제개발, 금융, 계량경제학 등이다. 특히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으로 구성되는 국제경제학과 다른 차원에 지역경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극히 희박하다. 1990년대 전반 국제경제학이 아닌 세계경제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다(이대근, 1993). 현재 서울의 우수 대학 경제학과 학부과정에서 동남아경제론 형태의 강의가 개설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⁹ 김영삼 정부 때 설립한 국제(지역)대학원은 지역연구에 초점을 두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실제 교수 총원은 국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지역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국제대학원의 커리큘럼은 일반 대학원 경제학과처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은 현재의 기능별 과목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국제무역이나 국제금융론이 필요하지만 세계경제론이나 아시아경제론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공립 대학에 동남아 경제론을 개설하고 교수진을 확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지역지향적인 연구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 일부 연구진은 정부나 통계 당국이 발표하는 2차 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 기법을 동남아 경제 연구에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방법이 기존의 서술적인 동남아 경제 연구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

¹⁹ 한국 유학생들의 다수를 배출할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 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에서 동남아 경제 과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는 중국경제론, 일본경제론이 있고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제통합론이 있으나 동남아경제론은 없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는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지역경제론이 있고 대학원에서 동아시아경제론이 개설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는 중국경제론, 신흥공업국론이 있지만 동남아경제론은 찾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경제를 전공해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당연히 동남아 경제를 공부할 가능성은 없다.

만, 동남아라는 지역의 미시적 기반과는 관계 없는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지역경제로서 동남아 경제가 아니라 국제경제로서 동남아 경제를 보는 측면이 강하고, 동남아 아닌 다른 어느 지역에도 동일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즉 분석결과와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동남아라는 특수성을 사상해버릴 가능성을 내포함으로써 정책 적용에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지역연구로서의 동남아 경제 연구의 특성을 규명해 낼 수 있는 현장연구가 많아져야 하고 그러한 현장에서 습득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동남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다 지역경제전문기관으로 재편성될 필요도 있다.

셋째, 정부나 대학의 연구비 지원도 중요하다. 최근 학술진흥재단의 지역연구 지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비를 젊은 연구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도 늘리고 지원절차도 보다 명료하게 하여 잠재성이 있는 젊은 동남아 지역 경제학자들의 연구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

한편 동남아 경제 연구 분야에서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는 자본축적, 산업과 기업,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연구이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제도, FTA에 대한 연구는 지역으로서 동남아 경제와 관련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보다는 동남아가 내재적 혹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규명해 내는 분야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동남아 정부, 기업, 다국적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자본축적을 하고 있는가, 동남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현지경제와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와 같은 연구를 비롯하여 현지 중소기업의 역할, 정부의 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는 현재나 미래의 동남아 경제를 이해하는데 시급한 연구과제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한국과 관련해서는 동남아에 진출해 자본을 축적해 가고 있는 한국의 교민 경제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문성 · 김태형 · 박인원 · 신경림 · 정미경. 2011. 『한국의 캄보디아 · 라오스 · 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인수 · 김태은 · 홍승연. 2011.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고종환. 2006. “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 ASEAN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 『국제통상연구』 11(2), 95-119.
- _____. 2007.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11(3), 387-417.
- _____. 2008. “CGE모형을 이용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제지역연구』 12(3), 419-448.
- 구성열. 2001. “베트남 노동시장의 개혁: 과제와 방향.” 『동남아시아 연구』 11, 193-217.
- 국제경제연구원. 1978. 『東南亞地域要覽』. 산업연구원.
- 권경덕. 2003.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경덕 · 김은지. 2004. 『일본 · 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1998.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9.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 연구』 8, 7-46.
- _____. 2002.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4.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14(2), 299-342.
- 권율 · 정인교 · 박인원. 2004.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기흥. 2006. “한, ASEAN 경제통합시 정보통신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전략과 경쟁력 분석.” 『국제통상연구』 11(3), 65-199
- 김완중. 1998.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위기의 배경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5. “환율이 말레이시아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동남아시아 연구』 15(1), 173-204.
- _____. 2009.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19(3), 221-260.

- _____. 2010a. “동남아에 대한 한, 중, 일의 생산공정별 수출구조와 경쟁관계: 중국의 한, 일 수출 구축효과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0(3), 65-100.
- _____. 2010b.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제적 상호연계 분석 — 지역 간 무역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2(2), 1-26.
- 김재원. 1999. “동남아국가 임금정책의 시사점.” 『노동경제연구』 22, 67-86.
- 김종길. 1994. “한국과 아세안제국의 공업화 비교 연구.”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8(1), 1-24.
- _____. 1995. “아세안제국의 경제성장 — 신성장이론을 통한 검증.”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9(2), 29-57.
- _____. 2001. “경제위기 이후의 아세안과 동아시아 성장 메커니즘.” 『동남아시아 연구』 11, 1-34.
- 김홍구. 2000. “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외국인 불법 노동자 문제.” 『동남아시아 연구』 9, 55-84.
- 김희주 · 홍석일. 1995. 『아세안의 도전』, 산업연구원.
- 나희량. 201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20(1), 143-180.
- 길인성 외. 1995. “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서울: 서울프레스.
- 박번순 · 하영호. 1993. 『베트남-아시아의 마지막 시장』, 서울: 주인기획.
- 박번순. 1996. 『동남아시아의 주요기업』,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1999. 『말레이시아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외. 1998. 『IMF 사태로 본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체제』,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0a.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내실 없는 일탈.” 『동남아시아 연구』 10, 95-130.
- _____. 2000b. 『동남아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삼성경제연구소.
- _____. 20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3. “동남아 경제의 발전요인과 특성.” 윤진표 편.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 전략』, 서울: 으뜸.
- _____. 2004. 『동남아 경제발전 모델의 변화 가능성 평가』, 삼성경제연구소.
- 박사명 편. 200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서울: 폴리테이아.
- 박순철. 1989. 『한·ASEAN 간 무역결정패턴 비교분석 — 무역결합도 이론을 중심으로 일본 및 미국과 비교 —』, 산업연구원.
- 박은홍 · 김지훈. 1999. “동남아 경제성장의 ‘결빙’과 금융위기: 타이와 인도네시아 사례

- 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8, 81-116.
- 박의범 · 노진표. 1996. “싱가포르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96정례학술발표논문집, 193-223.
- 박인원. 1998. “AFTA, Is It Sufficient for ASEAN’S Further Economic Growth?.” 1998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03-728.
- 박재봉. 1997. “인도네시아의 경제개혁: 민영화와 규제완화.” 『동남아시아 연구』 5, 91-122.
- 배광선 · 홍석일. 1990. 『ASEAN 제국의 투자환경과 우리의 진출전략』. 산업연구원.
- 배정환 · 이보람. 2011.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동천. 2000.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과 동남아 경제의 장기과제.” 『동남아시아 연구』 9, 3-25.
- 손수석. 1995. “동남아 경제의 지역화 및 역내무역유발구조 분석.” 『무역학회지』 20(1), 159-180.
- 손일태. 2007.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교역구조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국의 FTA 전략.” 『무역학회지』 32(3), 269-292.
- 손정식. 2000. “베트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0, 1-29.
- _____. 2005. “베트남의 국영기업 주식회사화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15(1), 205-236.
- 신윤환. 200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연구총서 21.
- 신장섭. 2011.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종량 · 류건우. 2000. “태국 금융산업의 문제점과 금융개혁.” 『동남아시아 연구』 10, 131-160.
- 안희완. 1991. 『베트남의 경제개발 전략과 외국인 투자환경』. 산업연구원.
- 원용걸. 1996. 『ASEAN 자유무역시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08. “ASEAN 주요국의 수출, 직접투자유입 및 경제성장간 상호관계 연구: 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동남아시아 연구』 18(2), 173-209.
- _____. 2010a. “수출주도 경제성장 혹은 수입주도 경제성장? — ASEAN 주요국의 경우 —.” 『동남아시아 연구』 20(1), 41-70.

- _____. 2010b. “최근 경제위기들과 ASEAN 주요국의 무역.” 『동남아시아 연구』 20(3), 41-64.
- 유재원. 1996a.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의 역할.” 『비교경제연구』 4, 95-140.
- _____. 1996b. “아세안의 경제발전: 대외지향적 공업화와 지역무역자유화.” 『경제발전연구』 2, 89-119.
- 윤계섭 · 온기선. 1992. “동남아 주요국 증권시장과 자본자유화 현황.” 『한국증권학회지』 14(1), 283-353.
- 윤상철 · 홍석일 · 홍지승. 1991. 『한 · ASEAN 간 산업협력의 현황과 전개방향』, 산업연구원.
- 윤진표 편. 2004. 『동남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전략-회고적 재평가』, 서울: 오름.
- _____. 2005.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폴리테이아.
- 이경태 · 김준현 · 박중구. 1985. 『한국 · 대만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의 전자부품산업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 이남구. 1995. “동남아시아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 한국, 일본, 중국의 경협(經協)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1), 181-207.
- 이대근. 1993. 『세계경제론』, 서울: 까치.
- 이두원. 2000. 『베트남 경제의 사유화 — 민간부문의 형성과 기업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 이문봉. 1994. 『동남아의 화교기업: 2천년대 대중화경제권의 주역』, 서울: 길벗.
- 이병두. 1992. “필리핀의 수입대체산업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 104-126.
- 이성량. 1999. “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개혁.” 『동남아시아 연구』 7, 47-72.
- 이성신 · 박원장. 2011.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승영 · 장양. 2010. “동남아화상의 기업문화에 대한 연구.” 『社會科學研究』 17(1). 동국대학교 社會科學研究院.
- 이장영 · 송치영. 1999. 『태국 바트화 위기의 원인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보고서.
- 장원창. 2000. 『자본통제가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 태국, 말레이시아 사례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 장원창. 2008. “국제경제: 아시아 신흥금융시장의 자본통제 효과분석: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동계학술대회.
- 전제성. 1999. “경제위기, 정치개혁,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노동문제: 자보파백

- 의 의류 신발업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연구』 8, 117-155.
- 정계룡 · 손승호 · 이진경 · 이세린. 2011.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구현 · 연강흠 · 손용민. 2001. “동남아 화인기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30(2), 503-530.
- 정인교 · 오동윤. 2004.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재완. 2009. 『미얀마의 주요 산업: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농업 및 농가공, 섬유 · 봉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천상덕 · 서동혁 · 송하을 · 오형나. 1995. 『ASEAN 화학산업과 한 · ASEAN 협력방향』. 산업연구원.
- 천상덕 · 최봉현 · 홍지승. 1996. 『Greater ASEAN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 천상덕. 1997. 『ASEAN Demand for Korean Investment: A Cross-Industry Study』. 산업연구원.
- 최봉현. 1994. 『베트남의 산업과 한 ·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연구원.
- 최신림. 1990. 『한 · 베트남 경제협력 방안』. 산업연구원.
- Asiaweek*. 1997. 5. 30.

Abstract

Review of Researches on Southeast Asian Economy in Korea

Bun-Soon Park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is research is a survey on Southeast Asian studies undertaken in Korea since the late 1970s, which analyzed them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themes, areas within Southeast Asia, and types of researchers. This survey reveals that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KIEI)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ield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that most of their research outputs have been in the form of ‘policy briefing.’ In general, most academic papers on Southeast Asia were on the topic of ‘policy advice.’ In terms of time period, most research papers on Southeast Asia were written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analyzing Vietnam was relatively popular in particular. In terms of research topics, studies dealt with not only on the economic issues of Southeast Asia, but also topics related to Korea such as the business expansion environment for Korean corporations, or the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Yet, researches on Southeast Asian economy were mostly general economic analyses that lacked depth or detail. In order to encourage more research on Southeast Asia, university curricula must be reformed in order to train students as experts. Moreover, researches should be more area-focused, rather than based on international economics.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pand their support.

Keywords | Southeast Asian economy, Korea International Economics Institute (KIEI),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SEAN